

“전남·일신방직 개발 사업성·공공성 조화 이뤄야”

시의회 정책토론회…‘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방향 논의
“근현대건축물 활용 개발 계획 공공 기여 필요” 한목소리

현대백화점그룹이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립 계획을 수립한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정책토론회가 7일 광주 시의회에서 열렸다.

시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시, 민간사업자, 주민 대표, 건축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법인인 휴먼스튜디오스 PFV의 소경용 대표는 발제자

로 나서 복합 쇼핑타운 기능을 갖춘 ‘챔피언스 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복합쇼핑몰인 ‘더 현대’를 비롯해 역사문화공원, 스트리트몰, 특급호텔, 랜드마크 타워, 주상복합 시설 조성 등을 설명했다.

소 대표는 “30만㎡(9만여평)에 이르는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챔피언스시티’는 원도심 활성화, 산업유산 역사성 보존, 공공성 확보를 3대 원칙으로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을 지키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 품격있는 도시 경관과 공간 창출,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 대표는 “해방 전에 지어진 공장 건축물 등 10곳을 원형 보존하는 등 광주시가 제안한 협상 전제조건 및 권고 사항 이행방안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원형 보존하는 건축물 10곳은 공장2과, 생산1팀, 직포공장, 원면창고, 구 식당, 구 기숙사, 구 공관, 여자기숙사, 신성회관, 원사무실 등이다.

이어 천득염 한국학호남학진흥원장은 발제를 통해 공장 건축물 보존과 활용 가치의 평가 기준, 공장 보존 기본원칙, 도

시계획 협상 조건 등을 제시했다.

천 원장은 “근현대 건축물을 활용해 도시 공간을 재개발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사업자가 건축물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이전하거나 일부를 보존하는 것은 재현오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주민대표와 건축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박흥근 포유건축사무소 대표는 “공장 부지의 2/3 이상을 광주시에 공공 기여하고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충분한 협상을 통한 개발이 중요하다”며 “공공 기여도를 7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부지 변경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채 전남·일신방직 이전 주민협의체 공동대표는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기본 계획만 1년6개월이 걸렸고, 보존할 건물도 너무 많다”며 “정치·경제적으로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해 광주에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گون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개발이익을 고려하면 부지 면적의 70%를 공공 기여해야 한다”며 “보존·활용을 위한 광주시의 책임있는 역할과 함께 사업자도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발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로 그치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는 “10개 건축물을 보존하자는 협상 조건을 마련했는데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역사문화공원은 국제 협상설계 공모를 거쳐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고 도시의 매력을 갖춘 기획안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쇼핑몰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해결,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 광주천과 연계 개발, 조망권 침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평환 시의원은 “사업 성과와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해남군 화산면 해창주조장을 방문, 업체 현황을 청취한 뒤 제조과정을 설명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지사, 쌀 가공 고부가가치 창출 현장 점검

해남 해창주조장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농가가 생산한 쌀을 원료로 국내 최고가 막걸리를 생산하는 해남 해창주조장을 방문해 고부가가치 창출 현장을 살피고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해창주조장은 쌀 소비 감소로 농업인이 어려운 가운데 쌀 재배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매년 700t(12억원)을 매입해 ‘해창막걸리’를 생산, 연간 60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9도, 12도, 15도, 18도 등 대표 제품 4종은 8천원부터 11만원으로 일반 시중

제품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유명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는 물론, 전통주 커뮤니티인 ‘백술닷컴’ 등 온라인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1920년대 설립된 해창주조장은 역사만큼이나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막걸리 만들기, 시음 등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어 2014년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 2021년 한해 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명실상부 해남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오병인 해창주조장 대표는 “명절 전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18도 제품은 1병에 11만원으로 연간 3천여병이 완판되는 인기제품이고, 160만원 상당의 ‘아폴

로 막걸리’도 백화점 등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며 “지역 쌀을 이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막걸리뿐만 아니라 증류주도 생산해 수출 효자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해창주조장이 전통주의 명맥을 지켜내면서 쌀 가공을 통한 소비를 확대하고 체험 관광까지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한 전통주 산업을 집중 육성해남도 술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도 높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 시의회서 ‘제동’

예산 삭감…정다는 시의원 “줄속 추진 원점 재검토해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성역화 사업에 대해 용역 예산을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5·18 구묘역 성역화사업 조성 용역 예산 3억9천만원 가운데 설계용역비 2억7천만원을 삭감했다. 광주시는 설계용역을 거쳐 5·18 구묘역을 국립묘지와 지하보도로 연결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정다는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구묘역 추모관 건립’이 슬그머니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5·18민주묘지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줄속 추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기본구상(안)을 작성한 뒤 시설비 명목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광주시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광주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계획대로라면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은 사실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5·18민주묘지 확장 사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은 민주주의 정신 계승 등 광주시민의 염원과 직접 연관된 사업인 만큼 계획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며 “광주 망월동을 두고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협의회와 5·18 단체 사이의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5·18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TF팀을 꾸려 예산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추모관 건립 사업은 성역화 사업과 별개로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며 “사업 기본 구상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 전문성 ‘도마위’

시의회 청문회…“경력 없고 경영 능력 판단 어려워”

7일 열린 조익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이나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경우 교통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데 조 내정자는 철도 관련 경력이 없다”며 “농어촌

공사 상임감사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는 경영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내정자가 경영하다 양도한 업체가 건설사로 전환한 뒤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우연일 수 있지만 내정자도 태양광 관련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전에도 이름에 올

라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수훈(민주당·서구1) 의원과 홍기원 의원(민주당·동구1)도 조 내정자의 전문성 부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익문 내정자는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3년 3개월 하면서 조직문화나 자체 사업을 다뤘다”며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운영하던 업체를 양도한 뒤 해당 업체나 양수인과는 관련이 전혀 없으며 지분도 없다. 등기부상에도 관련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박선강기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 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CMYK